

# 해평윤씨 부인의 『윤시조기록』 연구

조혜진\*

1. 서론
2. 자료소개
3. 글쓰기의 특성
4. 글쓰기를 통한 자기탐색
5. 결론

## <국문초록>

본고는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윤시조기록』을 소개하고 그 특성을 논하는 글이다. 이 작품은 19세기 양반 여성인 해평윤씨가 자신의 반생을 서술한 자기서사로, 화성에서 세거한 풍양조씨 집안에서 전승되어 오던 것이다.

『윤시조기록』에서 작자는 자신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되 행복한 사건과 불행한 사건을 대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또한 작자는 자신이 경험하였던 고독과 비통을 생생한 상황 묘사와 독백의 직접 인용을 통하여 핏진하게 표현하고 있다. 한편 이 작품에는 가사의 창작방법이 차용되거나 가사를 직접 인용하는 등 가사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은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체화하고 있는 당대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과 유사하지만, 남편에 대한 열(烈)보다는 부친에 대한 효(孝)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해평윤씨는 남편을 잃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해명하고 자손에게 투생

\*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박사과정

(儉生)의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자기서사를 기록하였으리라 짐작된다.

핵심어: 윤시자기록, 해평윤씨, 자기서사, 풍양조씨, 19세기

## 1. 서론

조선후기에 이르러 여성이 자신의 일생에 대하여 서술하는 글쓰기가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작품은 남성중심사회에서 잘 드러나지 않는 여성의 목소리가 직접적으로 표출된다는 점에서 일찍부터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여성의 글쓰기에 대한 당대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많이 전해지지 않는다. 특히 산문이 남아있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새로운 자료의 발굴이 긴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sup>1)</sup>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윤시자기록』은 아직까지 학계에 소개된 바 없는 작품으로, 19세기 양반 여성이 자신의 반평생을 회고한 글이다. 작자가 자신의 일생에 관하여 적었으므로 자기서사에 해당한다.<sup>2)</sup> 따라서 이 작품에 대한 연구는 무엇보다 여성의 자기서사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19세기 양반 여성의 대표적인 자기서사로는 『즈기록』과 『규한록』이 있다. 전자는 풍양조씨(豐壤趙氏, 1772~1815)의 기록이며, 후자는 광주이씨(廣州李氏, 1804~1863)의 기록이다.<sup>3)</sup> 『윤시자기록』은 젊

1) 현전하는 산문 작품으로는 인목대비(仁穆大妃, 1584~1632)의 『술회문(述懷文)』, 한산이씨(韓山李氏, 1659~1727)의 『고행록(苦行錄)』, 혜경궁 홍씨(惠慶宮 洪氏, 1735~1815)의 『한중록(閑中錄)』, 풍양조씨(豐壤趙氏, 1772~1815)의 『즈기록』, 광주이씨(廣州李氏, 1804~1863)의 『규한록(閨恨錄, 박요순 명명)』 등이 있다.

2) 화자가 자기 자신에 대하여 말하는 글쓰기는 여러 가지 용어로 지칭된다. 본고에서는 박혜숙 외의 논의를 수용하여 자기서사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자기서사는 “자기 자신에 관한 이야기를 그것이 사실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진술하며, 특정시기까지의 자신의 삶을 전체로서 성찰하고 그 의미를 추구하는 특징을 갖는 글쓰기 양식”을 의미한다(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8면).

3) 두 작품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요순, 『신발견 ‘규한록’ 연구』, 『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1970, 149~169면; 이우경, 『규한록의 수필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147면; 조

은 나이에 남편을 잃은 자신의 생애를 기술하고 있다는 점에서 두 작품과 동떨어져 있다.

본고에서는 먼저 작품의 서지사항과 주변정보를 통하여 작자에 대하여 고증하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작품의 서술적 특성을 살펴보고 작자가 자기서사를 쓴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후속연구를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고자 한다.

## 2. 자료소개

### 2.1. 서지사항

『윤시즈기록』은 현재 화성시 향토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으며, 여기에 소장된 것이 유일본으로 보인다.<sup>4)</sup> 이 자료는 2007년 조택기 옹이 화성시에 기증한 고서 및 고문서 중의 하나로, 원래 매송면 야목리 일대에 세거해온 풍양조씨 문중에서 전승되던 것이다.<sup>5)</sup>

이 작품은 1책의 한글 필사본으로, 표제가 없으며 권수제는 ‘윤시즈기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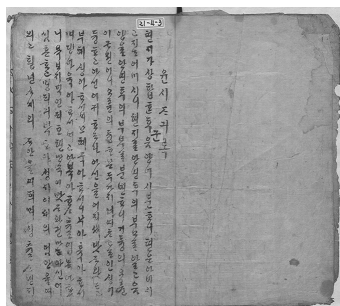


그림 1 『윤시즈기록』 1a면.

해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방식」, 『이화어문논집』17, 이화어문학회, 1999, 295~311면; 박옥주,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1, 165~188면;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회, 2001, 239~271면; 김정경, 「<규한록>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101~131면;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2, 241~272면; 김경미, 「<자기록>의 작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8,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14, 121~144면.

4) 화성시 향토박물관의 규정 때문에 자료를 직접 열람할 수 없었으나, 화성시청 이정윤 주무관의 도움으로 전체 자료를 찍은 사진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 지역을 세거지로 삼은 풍양조씨는 이른바 ‘들목조씨’라고 불린다. 이들은 구포(鳩浦)를 중심으로 근방에 흩어져 살고 있으며, 임진왜란 이전에 선조가 이 일대에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김혁, 「고문서로 본 들목조씨의 역사」, 『들목조씨 소장 고문서』, 화성시, 2006, 13면).

책의 크기는 33×20cm이며, 분량은 총 22장으로 각 면 10~13행, 각 행 16~20자로 필사되어 있다.

필사기가 18a~18b면, 22b면에서 총 두 차례 나타나므로, 적어도 두 번에 걸쳐서 필사되었음을 알 수 있다.<sup>6)</sup> 편의상 첫 번째 필사기를 필사기①, 두 번째 필사기를 필사기②로 부르하고자 한다. 대체로 동일한 필체로 필사되었으므로 전체를 한 사람이 필사한 것으로 보인다.<sup>7)</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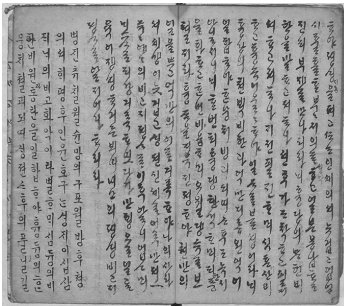


그림 2 필사기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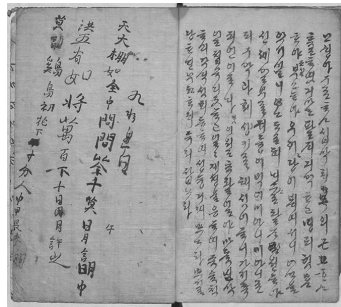


그림 3 필사기②

필사기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필사기① 병진(丙辰) 추칠월(秋七月) 순망(旬望)의 구포(鳩浦) 월망(越房) 후청의서(海平) 후인(後人) 윤호구는 십지이십삼지내(生之二十三載內)의 비고화악(悲苦禍惡)이 타별(他別) 하심(心中)의 비한비원(悲恨悲怨)과 통탄(痛嘆)을 일합(一合) 하야 흉중(胸中)의 훈 멩치 철괴(鐵塊) 되어 싱전스후(生前死後)의 풀닐 길 업고 싱전의도 원분비한(怨憤悲恨)을 고흔 곳지 업스미 천(千)에 일(一)과 만(萬)의 이(二)를 스스로 기록하야 싱전 보고 만일 완명이투성이후(頑命而偷生以後) 하거든 즈손(子孫)을 뵈여 알게 하고 또 무순 일호(一毫) 깃부고

6) 간혹 오자가 수정된 흔적도 나타난다. 이때 오자를 먹으로 지우는 경우와 그 위에 종이를 잘라 붙여서 다른 글씨를 쓰는 경우가 있다.

7) 필사기①에서 필체가 달라지는데, 그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이 작품과 필사자가 동일한 것으로 알려진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규범(閔範)』에서도 본문과 필사기의 필체가 다른 것으로 보아 필사자가 의도적으로 글씨체를 바꾸었을 가능성이 있다.

희행(喜幸)호 일 기록호염즉호 일 이 잇거든 또 기록호라 조희를 남기노라.<sup>8)</sup>

필사기② 정스(丁巳) 이월(二月) 초팔일(初八日)야만 돌연(突然) 삼일(三日) 접숙(接宿)디 못하고 일”(日日) 계성(鷄聲)을 응호여 즉(卽) 숙침(宿寢)호미 각식(各色) 심회(心懷) 동(動)호여 싱승거려 쓰노라. 쓰기를 당호면 무한(無限)호되 주리 잡노라.<sup>9)</sup>

필사기①에서 필사자는 필사시기와 필사이유를 밝히고 있는데, 당시 23세가 된 해평윤씨라는 인물이 병진년(丙辰年) 7월 15일에 이 글을 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작품 안의 다른 정보를 참조한다면 병진년은 1856년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다른 사람의 필사기가 없으므로 필사자와 작자가 동일인물일 가능성이 크다.

필사자는 추후 기록을 위하여 종이를 남긴다고 밝히고 있는바, 18b면 후반부에서 22b면까지의 내용은 1856년 이후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는 필사기②에서 확인되는 정사년(丁巳年) 2월 8일로, 이때 정사년은 병진년의 이듬해인 1857년을 가리킨다.

이처럼 이 자료는 19세기 중반에 기록된 것으로, 필사기를 준신한다면 작자인 윤씨 부인이 직접 기록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렇다면 윤씨 부인은 누구인지 그녀가 이 기록을 남긴 경위는 어떠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 2.2. 작자생애

윤씨 부인(1834~1882)은 윤명선(尹明善, 1804~1835)<sup>10)</sup>와 전주이씨(全州李氏, 1803~1837)<sup>11)</sup>의 딸이며 조종재(趙宗載, 1837~1856)의 부인이다.

8) 『윤시조기록』, 18a~18b면. 이후 같은 작품을 인용할 때는 면수만 적는다. 띄어쓰기 및 한자병기, 강조표시는 인용자가 추가한 것이며, 이하의 인용문도 그러함을 밝힌다.

9) 22b면.

10) 『해평윤씨대동보』에는 물년이 ‘高宗乙未一八九五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옆에 1876년에 사망한 맏형 윤양선(尹養善)이 ‘伯兄養善撰誌’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을미년은 1895년이 아니라 1835년(憲宗 1)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본다면 작자가 2세에 부친이 세상을 떠났다는 『윤시조기록』의 기록과 일치한다.

11) 『해평윤씨대동보』에는 물년이 ‘光武丁酉一八九七年’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윤시조기록』

『윤시즈기록』을 제외하면 그녀에 대한 기록은 거의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가계의 관계망 속에서 윤씨 부인의 삶에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그녀의 친가는 해평윤씨로 서울에 세거해 왔다. 부친 윤명선은 소과를 하거나 관직에 나아간 기록은 없는데 이는 단명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자식은 작자 하나뿐이며, 형 윤양선(尹養善)의 둘째 아들인 인구(寅求)가 후사를 이었다. 조부 윤치로(尹致魯, 1779~1823)는 『송정기원후사임자식사마방목(崇禎紀元後四壬子式司馬榜目)』에 품계가 통덕랑(通德郎)으로 나와 있다. 증조부 윤익렬(尹益烈, 1752~1821)은 1798년(正祖 22)에 동지사은사(冬至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이 되었으며, 사간원대사간(司諫院大司諫), 개성부유수(開城府留守), 예조참판(禮曹參判) 등을 역임하였다. 증조부 대까지는 고위직을 역임하였으나 조부 대부터 그러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보아 점차 가세가 기울어간 것이 아닌가 여겨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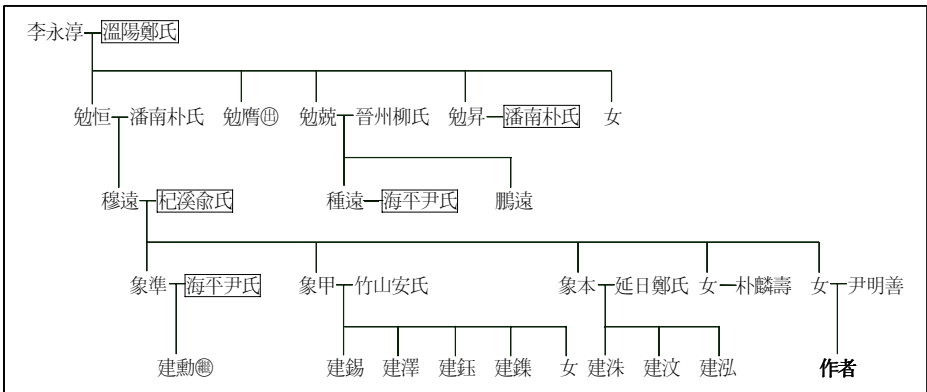


표 1 전주이씨 가계도

『윤시즈기록』에 따르면 작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숙의 슬하에서 자랐으므로 그녀의 삶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외가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해평윤씨대동보』에 따르면 모친 전주이씨는 목사(牧使)를 지낸 이목원(李穆遠)과 기계유씨(杞溪俞氏)의 사이에서 태어났다. 조부는 도사(都事)를 지

의 기록을 참조한다면 정유년은 1897년이 아니라, 1837년(憲宗 3)이다.

넨 이면항(李勉恒)이고, 증조부는 동중추부사(同中樞府事)를 역임한 이영순(李永淳)이다. 『전주이씨덕천군파보(全州李氏德泉君派譜)』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인물을 찾을 수 있는데, 그 가계는 위의 표에 제시된 바와 같다.

이 집안은 18세기 소설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서울대 규장각 소장 『옥원재합기연』과 『옥원전해』를 필사하였기 때문이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두 소설은 이영순의 부인인 온양정씨(溫陽鄭氏)와 자부(子婦)인 반남박씨(潘南朴氏), 손자부(孫子婦)인 기계유씨, 해평윤씨 등이 필사하였으며, 증손자부(曾孫子婦)인 해평윤씨가 1847년(丁未, 憲宗 13)에 개장하였다고 한다.<sup>12)</sup> 작자의 입장에서 본다면 온양정씨는 외고조모이고 기계유씨는 외조모이며 증손자부 해평윤씨는 외숙모에 해당한다. 선행연구에서 상술하였듯이, 이들 가문은 대대로 서울에서 거주하였으며 면(勉)자 항렬까지는 고위직을 역임하였으나 그 후대인 원(遠)자, 상(象)자 항렬에서는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였다.<sup>13)</sup>

작자는 자신이 외숙의 슬하에서 자랐다고 밝히고 있는데, 이때의 외숙은 상준(象準), 상갑(象甲), 상본(象本) 가운데 한 사람일 것이다. 작자는 외숙에게 자식이 없으며 입양한 아들마저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밝히고 있다. 족보에 따르면 상갑은 죽산안씨(竹山安氏)와의 사이에서 4남 1녀를, 상본은 연일정씨(延日鄭氏)와의 사이에서 3남을 낳았으므로 친자가 없는 상준이 작품에 등장하는 외숙일 확률이 가장 높다. 그에게 친자가 없는데도 부인이 작자와 같은 집안이었으므로 부모를 잃은 작자를 맡게 되었으리라 짐작된다. 또한 상준의 부인은 『옥원재합기연』 연작을 개장한 해평윤씨이므로, 당시 14세였던 작자가 개장에 참여하였거나 그 과정을 지켜보았으리라 생각해볼 수 있다. 즉, 작자는 장편소설을 활발하게 향유하는 집안에서 자라났으며, 그 경험이 『윤시조기록』의 저술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한편 작자가 시집간 들목조씨 집안은 포저 조익(浦渚 趙翼, 1579~1655)과 송곡 조복양(松谷 趙復陽, 1609~1671)의 후손으로 대대로 화성에 거주

12)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면 참조.

13)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란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201면.

해왔다.<sup>14)</sup> 남편 조종재는 조희필(趙熙弼, 1812~1874)과 연안이씨(延安李氏)의 2남 1녀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부친 조희필은 대구도호부판관(大邱都護府判官) 등을 지냈다. 조부는 대사헌(大司憲), 이조판서(吏曹判書) 등을 지낸 조학년(趙鶴年, 1786~1854)이며, 증조부는 수원에서 실시된 별시(別試)를 통해 정조(正祖)에게 발탁되어 대사성(大司成), 형조판서(刑曹判書) 등을 역임한 조만원(趙萬元, 1762~1822)이다.

윤씨 부인의 생애는 『윤시조기록』의 내용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다. 작자의 인생은 결코 순탄하지는 않았는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부모를 잃었기 때문이다. 윤씨 부인은 1834년(甲午, 純祖 34)에 태어났으나 2세에 부친을, 4세에 모친을 여의고<sup>15)</sup> 외숙의 슬하에서 자랐다.<sup>16)</sup> 그에게 형제가 없었으며 양부모에게도 혈육이 없었으므로 무남독녀로 자란 셈이다.

그는 17세가 되던 1850년(庚戌, 哲宗 1)에 당시 14세였던 조종재와 혼인하였다.<sup>17)</sup> 그런데 4년이 지난 1854년(甲寅, 哲宗 5) 12월에 남편이 중병에 걸리고 말았다.<sup>18)</sup> 남편의 병수발을 들던 중 1855년(乙卯, 哲宗 6) 8월 10일 경에 아들을 출산하였으나,<sup>19)</sup> 이듬해 5월 8일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후 인생에 대해서는 『풍양조씨세보』를 통하여 재구할 수 있다. 족보에서 조석재(趙錫載)의 둘째 아들 영도(永道)를 입후(入後)한 것으로 보아 결국 윤씨 부인의 친자가 사망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874년(甲戌, 高宗 11) 10월 12일에 시부가 사망하고, 8년이 지난 1882년(壬午, 高宗 19) 10월 29일에 시모가 사망하였다. 윤씨 부인을 지탱해주었던 이들이 모두 세상을 떠

14) 김혁, 앞의 논문, 20~29면.

15) “싱지이세(生之二歲)의 엄안(嚴顔)을 여의고 형년스세(行年四歲)의 즈안(慈顔)을 여의킴”(1a면)

16) “다만 고 〽 일신(孤孤一身)이 의탁할 곳시 업고 즈모(慈母)를 일흔 혈 〽 유익 성존호를 바라리오마는 외구(外舅)의 인익성심(仁愛誠心)이 여던지(如天地)호스 타인지생아(他人之生兒)라도 민지측지(憫之惻之)호스 거두어 무휼(撫恤)호시려든 하물며 혈맥(血脈)의 상응(相應)호미리오. 인호여 슬하(膝下)의 후양하실식”(1b면)

17) “군즈와 결발(結髮) 시의 군은 이칠(二七)이오 나는 군이여서 세히 더호드라.”(6a면)

18) “갑인년(甲寅年) 동(冬) 십이월세말(十二月歲末)의 무순 흉화(凶禍)가 호하 군의 신상(身上)의 나려 종신지질(終身之疾)노 돌연 득병(得病)호야 년으로 삼지(三載)나 삭(朔)으로 십여삭신고(辛苦)의 일 〽 일야(一日一夜)를 불안와석(不安臥席)이라”(7b~8a면)

19) “둥추(中秋) 순후(旬後) 싱즈(生子)호니”(9a면)



났던 것이다. 이 때문인지 그녀는 시모의 상을 당한 지 불과 며칠 후인 11월 6일에 세상을 떠났다.

요컨대 작자는 19세기의 양반 여성으로 그다지 순탄하지 않았던 인생을 살았다. 그녀는 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며 혼인한 지 7년 만에 남편마저 잃고 말았다. 작자는 남편의 죽음을 경험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의 생애를 스스로 기록하기 시작하는데, 이 글이 바로 『윤시조기록』이다.

### 3. 글쓰기의 특성

#### 3.1. 행복과 불행의 대비적 서술

윤씨 부인은 『윤시조기록』에서 자신의 반평생을 돌아보며 자신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 여성의 자기서사는 대체로 두 가지 방법으로 서술된다. 첫째는 일생을 연대기적 구성으로 서술하는 방법으로, 풍양조씨의 『조기록』에서 확인된다.<sup>20)</sup> 둘째는 개인적 경험을 깊은 인상을 받은 순서로 나열하는 방법으로 규방가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난다.<sup>21)</sup> 이 가운데 『윤시조기록』은 주로 전자의 방법으로 서술되어 있다. 그런데 과거의 경험이 단순히 시간 순으로 서술되는 것은 아니다. 행복한 경험과 불행한 경험이 대비적으로 서술되면서 작자의 일생이 재구성되기 때문이다. 작품의 서술을 주요 내용에 따라 ① 어린 시절의 충격, ② 신혼 시절의 부적응, ③ 남편의 병사(病死), ④ 투생(偷生)의 이유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sup>22)</sup>

#### ① 어린 시절의 충격

작자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외숙부모의 슬하에서 자라난다. 그들은 윤씨 부인을 천금지보(千金之寶)처럼 여겨서 아낌없는 사랑을 쏟았는데, 특히

20) 박옥주, 앞의 논문, 177면.

21)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88면.

22) ①은 1a면~4a면 전반부, ②는 4a면 후반부~7a면, ③은 7b면~18b면 전반부, ④는 18b면 후반부~22b면에 해당한다. ①~③은 1856년의 기록인데 반해 ④는 1857년의 기록이다.

병치레가 잦던 작자를 지극정성으로 간호하였다. 양부모에게 친자가 없는 데다 양자로 들인 아이마저 요절한바, 그들은 작자에게 오묘한 사랑을 쏟았으며 작자는 그들을 친부모로 알고 자라난다.

그러나 행복했던 어린 시절은 영원히 지속될 수 없었다. 열네 살의 윤씨 부인은 마침내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된다. 그녀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 나서 양모에게 자신의 근본에 대하여 묻는데, 양모는 그녀가 친녀가 아니라 생질녀라는 사실을 털어놓는다.

이칠(二七)이 되디 생양(生養)을 불분(不分)이러니, 타인(他人)의 언단기간(言端之間)의 자연(自然) 천륜(天倫)이 자동(自動)호물 면치 못하느니라. 양모(養母) 슬전(膝前)의 감문기고(敢問其告)호디 진가(眞假)를 몽믹(夢寐)의도 분간치 못호엿다가 모(母) 왈, “여즈 〽 호야 녀(汝) 싱달(甥姪)이오 아(我) 녀(汝) 표숙(表叔)이니라.” 호시니 본성(本性)을 부지(不知)호니 덧 〽 호 부내(父母) 자녀(子女)로 타의(他意) 잇서시리오? 도로혀 텃승(天性)을 히득(解得)호는 시일(時日)을 당호여 양모의 언출기시(言出其時)의 청텃백일(晴天白日)에 급한 뇌성(雷聲)이 전신을 분쇄호는 듯 텃지가 묘망(渺茫)호고 흉금(胸襟)이 억식(抑塞)호야 심혼(心魂)이 산비(散飛)호니 히음업시 엄호일성(嚴呼一聲)의 누쉬(淚水) 좌석(座席)의 고이는 디라.<sup>23)</sup>

드디어 작자는 자신의 근본을 알게 되었으나, 마른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지는 것 같은 충격을 받는다. 그동안 친부모로 알았던 이들이 사실은 외숙 부모인데다 자신이 전주이씨가 아니라 해평윤씨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다. 이로 인해 윤씨 부인은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sup>24)</sup>

## ② 신혼 시절의 부적응

작자가 열다섯 살이 되자 양부모는 택서(擇婿)에 골몰하기 시작한다. 그들은 작자가 풍양조문에 가기로 결정되자 그녀가 성문대가에 출가하게 되었다고 매우 기뻐한다. 작자는 “생아즈(生我者)는 부모요 구아즈(救我者)는 양부되<sup>25)</sup>라며 그 은혜에 감격하는 한편 자신의 혼인을 기뻐할 친부모가

23) 2a~2b면.

24) 내적 갈등의 구체적 양상은 3장 2절에서 살펴볼 것이다.

없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시부모는 자애롭고 남편은 단정하였으며 시가에서의 생활은 의식(衣食)이 풍족하고 별 탈 없이 평온하였다. 그럼에도 작자는 극심한 외로움에 시달렸다.

구가(舅家)의 성번(盛繁)함과 숙피 군중(群從)의 안항(雁行)이 변화(繁華)호물 보아는 심흔이 홀호여 구곡촌심(九曲寸心)이 여회(如灰)호물 면치 못호야 침선(針線)을 다스리다가도 희음업시 노하야디고 원턴(遠天)을 창망(悵望)호야 구원(九原)이 영격(永隔)호니 부모의 음용(音容)이 묘망(渺茫)호시고 일신은 도라보니 그림지 외로운디라. 츠고로 육오(蓼莪)의 통(痛)과 적녕(鶴鳴)의 한(恨)이 구곡(九曲)의 억미어 비록 경사(慶事) 잇스나 깃봄이 돈절(頓絕)호니 어더 고흐리 오<sup>26)</sup>

외로움의 근원은 친부모의 부재에 있다. 작자는 시가의 변성함이나 숙모의 동기 많음만 보아도 까닭 없이 화가 일어났다고 말한다. 이는 친부모가 이미 세상을 떠났으며, 자신에게는 동기가 없기 때문이다.

윤씨 부인은 슬픔과 외로움에 침잠하는 스스로를 경계한다. 자신에게는 무엇보다 아들을 낳아서 대를 이어야 하는 의무가 있고, 만약 자신의 아들이 부귀해진다면 불효를 면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밤낮으로 아들 낳기를 기원하지만 외로움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자신이 분에 넘치는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요절할 것이라고 근심하거나<sup>27)</sup> 부모의 골육이나 하나밖에 없다는 사실에 슬픔을 느끼는 것이다.<sup>28)</sup> 작자의 외로움은 친부모의 부재라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상황에 기인하는 것이므로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 ③ 남편의 병사

외로움에 고통스러워하는 윤씨 부인에게 잠깐의 행복이 찾아온다. 성례

25) 4b면.

26) 5a면.

27) “너 평생(平生)이 복분(福分)의 과외(過矣)니 씨를 보디 못호고 청춘의 세상을 바려 군을 울닐 줄 아나 현마 잊지 호리오?”(6b면)

28) “너 부모의 골육이 아신(我身) 일인(一人)뿐이니 그림지 외롭고 정지(情地) 가련(可憐)이라”(6b~7a면)

를 치른 지 5년만에 드디어 아이를 잉태한 것이다. 작자는 아이의 잉태가 조상의 음덕과 시부모의 덕성, 남편의 은혜로 인한 것이라고 여기며 살얼음을 밟는 듯이 조심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해 말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린다. 남편의 투병에 대한 서술은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데, 이는 윤씨 부인의 일생을 좌우했던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남편의 병중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없으나 구체적인 시일과 더불어 주요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갑인년 12월 말에 남편이 갑자기 병에 걸린다. 윤씨 부인은 남편이 병에 걸린 날부터 “생즉동노(生則同老)하고 스즉동스(死則同死)하리라”<sup>29)</sup>라고 결심하고, 천지에 자신이 남편의 목숨을 대신하겠다고 빌고자 하였다. 다만 시모가 권하는 음식을 사양하지는 않았으나 물 한 모금조차 넘기기 어려웠다고 회고한다.

이듬해 3월 초순에 윤씨 부인은 출산을 위해서 친정으로 상경하였다. 7월에 남편도 서울로 올라오지만 증세가 많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8월 10일 경에 윤씨 부인은 아들을 순산하고 산후병에 걸려서 생사를 넘나든다. 그녀는 이내 쾌차하여 9월에 가족들과 함께 시가로 돌아왔는데 남편의 병증은 아직 나아지지 않았으므로 가족들의 근심은 사라지지 않았다.

결국 남편은 이듬해 세상을 떠나고 만다. 이후 사별의 비통이 표출되는데, 작자는 박명한 신세에 대한 한탄을 늘어놓는 한편 인륜에 죄를 지었다고 자책한다. 윤씨 부인은 여년에 대한 바람을 밝히며 본문을 마무리한다. 그것은 시부모의 은덕을 바라고 친부모를 의양하여 남은 생애를 보내는 것이다. 이처럼 본문에서는 행복과 불행이 대비적으로 서술되고 있다.

#### ④ 투생의 이유

이와 달리 후기(後記)는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답으로 이루어져 있다. 후기를 관통하는 질문은 ‘나는 왜 살아있는가?’이다. 작자는 자신이 억만 가지 고통을 겪었으며 백 가지 죄를 지었음에도 세상에 뜻을 두고 있는 이유를 자문한다.

29) 8a면.

니 스스로 심각하여도 텃하(天下)의 모진 인성이로다. 텃고(千古)의 업손 억만  
 디통(億萬至痛)과 빅 가지 디죄인(大罪人)으로 머리롤 드러 하늘을 보디 못하고  
 받노 짜홀 밥디 못하고 인뉴(人類)이 튡슈(充數)치 못홀 죄인이 또 다시 세상지님  
 (世上之念)을 두니 무엇시 속(屬)호 뜻진고?30)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음과 같다. 지금 자신이 목숨을 끊는다면 부모의  
 유체(遺體)가 훼손될 뿐더러, 시부모와 양부모에게 불효를 끼치고 어린 아  
 들에게 지통(至痛)을 안길 뿐이라는 것이다. 이 작품은 남편의 죽음을 계기  
 로 창작되었으며 투생의 이유를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풍양  
 조씨의 『조기록』과 유사하다. 그러나 『조기록』에는 그 이유가 논리적으로  
 서술된 데 반해31) 이 작품은 내면의 혼란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요컨대 윤씨 부인은 자신의 일생을 시간 순서에 따라서 기술하면서 행복  
 과 불행을 대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때 행복은 짧게 서술되는 데 반하  
 여 불행은 길게 이어진다. 행복한 사건은 후술되는 불행한 사건의 비극성  
 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작자가 자신의 고독과 비통을 절실하게 표현하  
 려다보니 자연히 이와 같은 서술이 이루어졌던 것이다.

### 3.2. 고독과 비통의 짙진한 묘사

여성의 자기서사에는 감정 표현이 풍부하게 나타난다. 특히 전통시대 자  
 기서사의 작자들은 자신의 인생을 불행한 것으로 간주한 경우가 많았으며,<sup>32)</sup>  
 일생 동안 경험하였던 비애와 울분을 토로하는 경향이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윤시조기록』에도 작자의 박명한 일생이 기술되어 있는데, 사건  
 의 경과보다는 당시의 감정이 집중적으로 서술된다. 작자의 감정은 상황의  
 묘사와 독백의 직접 인용을 통하여 선명하게 재현된다.

이와 같은 재현을 가장 잘 보여주는 장면은 친부모의 존재를 알게 된 자  
 신의 변화를 기술한 대목이다. 어린 자신의 행동이 섬세하게 묘사됨으로써  
 양부모와 내적인 거리감을 느끼며 친부모를 그리워하는 어린아이의 내면이

30) 18b면.

31) 박혜숙, 앞의 논문, 249면.

32) 박혜숙·최경희·박희병, 앞의 논문, 342면.

생생하게 전달된다.

천성(天性)을 명각(明覺)한 후는 (중략) 너 일호나 전후의 다름이 잇스리오마는 두리는 밧 즈로 부뉘 추후로 행지(行止)를 유심(憂心)스 텨눈이 각분(各分)하여 저러한가 비탄(悲嘆)스 너 팔즈어 무후(無後)함이 한이로다 현실(行狀)가 저허하고 유통아(幼冲兒)의 지각(知覺)이 미분(未分)한 씨 아모리 정도(正道)와 정언(正言)으로 훈교(訓敎)하시고 죄죄(責罪)하시나 엇지 능히 황공감은(惶恐感恩)함을 씨다라 성식과 비안(悲顔)을 아니 니리오. 아모리 슈심명골(繡心銘骨)하나 오히려 지각이 미통(未充)함이 아직 슬푸고 노호음만 아라 자연이 발(發)히미 후회(後悔)하여 송닐(悚慄)함이 불감(不敢)이니라. (중략) 흘연이 심기 저생(沮喪)하여 손의 드러던 일을 노코 당태식(長太息)함이 스스로 놀나 호읍(號泣)을 낫초고 안색을 화히하나 텨망모안(瞻望母顏)하여 식화여일(色和如一)이시면 비로소 숨을 휘 쉬고 비안적색(悲顔揚色)이시면 황연송구(惶然悚懼)하여 일신의 퍽이 업시 디니엿도다.<sup>33)</sup>

천륜을 깨달은 이후에도 작자의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았으나 그는 극심한 내적 갈등을 겪게 된다. 양부모가 자신을 보고 “텨눈(天倫)이 각분(各分)하여 저러한가” 여길까봐 행동을 조심하면서도 절로 일어나는 슬픔과 노여움을 감추지 못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작자는 자신도 모르게 자주 한숨을 내쉬게 된다. 이럴 때마다 스스로 놀라서 호흡을 낫추고 안색을 바꾸면서 양모의 기색을 살피는데 양모의 얼굴이 평소와 같으면 비로소 안도의 한숨이 나왔으며 그렇지 않으면 운몸의 힘이 빠져나갔다고 한다.

작자는 친부모와 양부모의 사랑에는 구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면서도 친부모에 대하여 자세히 알 수 없다는 사실에 슬퍼한다.

밤을 당하여 벼개를 어루만져 희음(喜音) 업시 추원영모지심(追遠永慕之心)이 즈동하여 니리 벼개를 적시나 일변 공겁(恐怯)함이 업지어나 부모의 침수(寢睡)를 슬퍼 호흡을 낫초와 우탄 왈, “너 아직 통년(冲年)의 죄악이 디둥하여 조상부모(祖喪父母)하고 데형(弟兄)이 무타(無他)하여 무치지락(舞綵之樂)과 연지지정(連枝之情) 업셔 고” 일신이 신테발부가 슈지부피시니 아신을 스스로 어루만져 늦겼도다.<sup>34)</sup>

33) 2b~3b면.

34) 3b~4a.

이에 작자는 밤이 되면 베개를 어루만지며 친부모를 그리워한다. 그녀는 눈물로 베개를 적시다가도 양부모가 깨어날까 두려워 소리를 낮추어 한탄한다. 유년의 최악으로 부모를 일찍 여윈데다 형제도 없으며 안타까워하고, “신체발부(身體髮膚)가 슈지부모(受之父母)”이므로 “아신(我身)을 스스로 어루만져” 친부모를 느끼려고 한다. 이처럼 작자는 독백을 직접 인용하여 자신의 감정을 적실하게 전달하고 있다.<sup>35)</sup>

작품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것은 남편과의 사별에 대한 비통이다. 작자는 그 날의 상황을 상세히 묘사함으로써 남편의 임종을 눈치 채지 못했던 자신의 슬픔을 드러낸다.

오호통의(嗚呼痛矣)라. 외람하나 니 니루지명(離婁之明)과 스광지총(師曠之聰)이 업서 저 즘음의 유즈(幼子)로 안아 문병문후시(問病問候時)의 슈어문답(數語問答)의 다투 능히 황양(黃壤)이 지격순일(至隔旬日)이물 일며 인하여 천고영결지언(千古永訣之言)인줄 알니요. 오호(嗚呼) 아심(我心)이여 비여철(非如鐵)이오 비여석(非如石)이라. 죄악(罪惡)회 박두(迫頭)호물 망연부지(茫然不知)호고 안여평상(晏如平常)이러니 기일(其日)을 당호야 심혼(心魂)이 산란(散亂)호고 흉금(胸襟)이 울(鬱鬱)호야 능히 접목(接目)디 못호고 안불침슈(安不寢睡)러니 비몽스몽간의 불길몽괘(不吉夢兆)라. 몽혼(夢魂)이 경각(驚覺)호야 번신기좌(翻身起坐)호야 좌스우상(左思右想)의 심기(心氣) 저상(沮喪)호고 경울초창(警鬱招悵)호나 만호(萬毫)도 씨듯디 못호고 시일이 불과(不過)호야 천앙화변(天殃禍變)을 당호니 천호(天乎天乎)의 통원(痛冤痛冤)이라. 거두양천(擧頭仰天)호야 시액(是厄)의 상달천문(上達天文)호고 하달지부왕(下達地府王)호야 비스비한(悲思悲恨)을 앙달원송(仰達遠送)홀 듯 오회라. 종턴영결시(終天永訣時)의도 불견님중(不見臨終)이니 불문유탁(不聞遺託)이라.<sup>36)</sup>

윤씨 부인은 남편이 죽기 얼마 전 아이를 안고 문병을 갔던 것을 회상한다. 당시에는 죽음이 멀지 않았음과 그때 나눴던 말이 마지막 말이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다.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작자는 정신이 산란하고 마음이

35) 이때의 독백은 직접화법으로 시작하여 간접화법으로 종결되는 것으로 준직접화법의 예이다(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62면). 이 작품에는 준직접화법의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저자의 고전소설 독서경험이 반영된 예라고 볼 수 있다.

36) 10b~11a면.

우울하여 쉽게 잠들지 못한다. 그녀는 흥몽을 꾸고 잠에서 깨어나는데, 하루가 지나기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다. 작자는 남편의 임종도 보지 못하였고 유언도 듣지 못하였다고 괴로워한다. 예법에 따라서 남편이 세상을 떠날 때 여성이 함께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후 작자는 사별의 비통을 반복적으로 토로한다. 윤씨 부인은 친부모가 없는 자신이 남편과 아들을 통해 삼종지도(三從之道)를 지키고자 하였으나 결국 과망(過望)과 적악(積惡)으로 인하여 인륜의 죄인이 되었다고 한탄한다. 작자는 과거와 현재의 고통을 대비하면서 사별의 비통을 극대화한다.

턴시지변전(天時之變轉)과 인스지쇠성(人事之衰成)이 약초(若此)ᄃᆞᆫ 아신(我身)이 녹군청삼(綠裙靑衫)이 변(變)ᄃᆞᆫ 황포소의(黃布素衣)를 화(化)ᄃᆞᆫ 청풍명월하(淸風明月下)의 신구디통(新舊之痛)이 겸발(兼發)ᄃᆞᆫ 거두창천(擧頭蒼天)ᄃᆞᆫ 회두(回頭)ᄃᆞᆫ 구원(九原)을 스모(思慕)ᄃᆞᆫ 석스(昔事)를 추모(追慕)ᄃᆞᆫ 일분(一分) 아픔이 업스시믄 오히려 세구년심(歲久年深)이니 고이치 아니려니와 불과 슈월지내(數月之內)의 형의(形儀) 형영(形影)이 묘망(渺茫)ᄃᆞᆫ 언어(言語)를 불통(不通)ᄃᆞᆫ 음용(音容)이 가리어 구원(九原)이 영격(永隔)ᄃᆞᆫ 지척(咫尺)이 천니(千里) 되고 아픔이 망연(茫然)ᄃᆞᆫ도다.<sup>37)</sup>

그녀는 수개월 사이에 달라진 자신의 옷차림을 내려다본다. 남편의 죽음으로 인해 녹군청삼이 황포소의로 바뀌게 되었던 것이다. 그는 부모를 잃은 과거의 고통과 남편을 잃은 현재의 고통을 대비시킨다. 전자는 오랜 세월 동안 겪었던 고통이지만 후자는 불과 몇 달 사이에 일어난 것이다. 이와 같은 대비를 통해 남편을 잃은 슬픔이 극대화된다.

이처럼 윤씨 부인은 상황을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독백을 직접 인용함으로써 자신의 내면을 적실하게 토로하고 있다. 물론 작자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표현기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려는 강렬한 욕구와 한글소설 등에 대한 풍부한 독서경험이 결합되어 자연스럽게 이러한 기법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37) 14b~15a면.



### 3.3. 문체에 나타난 가사의 영향

『윤시즈기록』은 한산이씨의 『고행록』이나 풍양조씨의 『즈기록』처럼 산문으로 작성된 자기서사이다. 이들 작품은 한자어 사용 빈도가 높으며 전고(典故)가 다수 사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체적으로 상통한다. 그런데 여타 작품과 달리 『윤시즈기록』의 문체는 가사와의 유사성이 많이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다.

이 작품은 나의 가치를 탐색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작자는 부모와 부부의 근원을 밝히고 나서 오륜(五倫)으로 인하여 인생이 중하고 아신(我身)이 귀하다고 말한다.

턴지(天地)가 상합(相合)호 후 균음양이 시분(始分)하니 턴(天)은 아버지고 지(地)는 어머니니 턴지를 안 연후의 부모를 알고 음양을 안 연후의 부부를 분별(分辨)하니 기둥의 오륜(五倫)이 근원이니 오륜의 둥호든 두 가지다. 여초고로 인싱(人生)이 둥(重)호고 아신(我身)이 귀(貴)호도다.<sup>38)</sup>

이는 『동몽선습(童蒙先習)』의 “태극이 처음 판별되어 음양이 비로소 나뉘므로써 오행이 서로 낳음에 먼저 이기가 있었다(蓋自太極肇判, 陰陽始分, 五行相生, 先有理氣)”<sup>39)</sup>와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만물의 무리 중에 오직 사람이 가장 귀하니,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오륜이 있기 때문이다(天地之間萬物之衆, 惟人最貴, 所貴乎人者, 以其有五倫也)”<sup>40)</sup>를 원용한 것이다. 작자는 수신서를 통하여 자신의 가치를 밝히고 있는데, 이러한 언급이 상투적으로 들리지 않는 것은 그녀가 부모를 일찍 여의었기 때문이다. 부모에 대한 기억이 전혀 없으므로 자신의 가치를 찾기 위해서는 수신서에 의지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그런데 작품의 서두를 구성하는 방법이 교훈류 규방가사와 상당히 유사하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38) 1면.

39) 성백효 역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전통문화연구회, 1992, 34면.

40) 위의 책, 13면.

티극이 혼합하여 근근이 기벽하고  
 음양오행 균정호와 창성만물 싱기서라  
 광디훈 텃디간인 유인이 최령하니  
 삼강오륜 안이오면 어이그리 최귀하라<sup>41)</sup>

인용문은 경북지방에서 향유되던 규방가사인 <효감가라>의 서두이다. 이 작품은 고인의 효행을 본받을 것을 권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가사의 서두도 『동몽선습』을 원용하고 있다. 『동몽선습』은 유학교육을 위한 입문 교재로 빈번하게 사용되었으므로, 두 작품이 동일한 초학서를 원용하면서 시작하고 있다는 점이 직접적인 영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신서를 원용하여 서두를 구성하는 방법이 교훈류 규방가사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며<sup>42)</sup> 이러한 서두를 인목대비의 『술회문』을 제외한 다른 산문 자기서사에서는 찾아볼 수 없으므로<sup>43)</sup> 『윤시즈기록』의 서두는 규방가사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규방가사의 영향은 다른 구절에서도 나타난다. 작자는 남편의 죽음을 한탄하면서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는데, 이때 <옥설화담(玉屑華談)>이 삽입되어 있다.

<p>㉞ 인간의 티를다가 북망산 도라들계 단정이 압혀서니 형식이 처량하다          히로가 슈삼성의 아니올니 다투스리</p> <p>㉟ 청산의 티를다가 사초로 집을삼고 송뿔으로 울을삼고 백양으로 정즈삼아          현궁을 김히닷고 명문을 줌웃는디          초목 진진골의 빙골이 진퇴로다</p>	<p>평생(平生)을 녀슈(曆數)히티 백년(百年)이 잠시로다. 슈요당단(壽夭長短)은 노소(老少)를 알 길 업스미          기 아니 느거으나? 초로(草露)갓든 인성은 일조일석(一朝一夕)의 슬어지면 타일(他日) 하시(何時)의 도          라오리오? ㉞ 청산송림(靑山松林) 하(下)의 티홀 잡          아 스초(莎草)로 집을 지어 송뿔(松柏)으로 담을 짚고          현궁(玄宮)을 김히 닷고 명문(冥門)을 잠가시니 공산</p>
--	--

41)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590면. 강조표시는 인용자가 추가한 것이다.

42) 이정옥은 작자의 자기서사가 포함되어 있는 규방가사의 서두에서 인간존중과 음양원리의 규범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고 분석하였다(이정옥, 『여성의 자기 서사와 유교 규범』, 『신라학연구』6, 위덕대학교부설 신라학연구소, 2002, 144~146면).

43) 인목대비의 『술회문』은 “生我者爲誰 鞠我者爲誰 皆所以爲父母也라(김일근, 『인목대비 술회문의 소개와 몇 가지 문제』, 『국어국문학』 23, 국어국문학회, 1961, 128면)”로 『계몽편(啓蒙篇)』 『윤리편(倫理篇)』의 “나를 낳은 이는 아버지와 어머니요(生我者爲父母)”라는 구절을 원용하면서 시작된다.

<p>㉔ 황천이 격흔곳이 어니벗지 츠저올가 동풍 빅운절의 즈손이 제를흔들 신명이 즈취업서 오느줄 모라거든 향화 일빅쥬를 먹을줄 어이올니 어와 가련홀스 죽으면 허시로다<sup>44)</sup></p>	<p>초목(空山草木)과 갖치 빅골이 진퇴하니 ㉔) 부뵈쳐 지 만반진미(萬般珍味)를 가득 노코 잇통운절(哀痛 殞絶)호야 제(祭)를 혼들 일개나 업스며 향화쥬(香火 酒) 일빅(一杯)의 흠향(歆響)호느 줄 알며 아모리 통 절(痛切)흔들 슬허호물 알니오?<sup>45)</sup></p>
--	--

<옥설화담>

『윤시조기록』

<옥설화담>은 어느 ‘기남자(奇男子)’의 일생을 통하여 인간의 유한성을 노래하고 있는 가사이다. 이 작품은 결사에서 죽음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데, 일부 이본에는 죽음 이후의 상황이 노래되기도 한다. 이때 ㉔ <해로가(灑露歌)>를 부르며 운구하는 장면, ㉕ 터를 잡고 묘를 쓰는 장면, ㉖ 자손이 제사를 지내는 장면 등이 나타난다.<sup>46)</sup> 이 중에서 ㉕와 ㉖의 내용이 자구의 출입은 있으나 『윤시조기록』에 삽입되어 있는데,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 ㉕의 ‘자손’에서 ㉖의 ‘부모처자’로 바뀌어 있다. 이를 통하여 인간의 보편적 죽음이 남편의 개별적 죽음으로 바뀌어 <옥설화담>의 “어와 가련홀스 죽으면 허시로다”라는 인생무상의 정서가 『윤시조기록』의 “아모리 통절(痛切)흔들 슬허호물 알니오?”라는 유명(幽明)의 단절에 대한 비통의 정서로 달라졌다. <옥설화담>은 창작시기가 18세기 말에서 19세기 초로 추정되며 당시 규방과 시정에 널리 유통되었을 것으로 보이므로,<sup>47)</sup> 윤씨 부인이 향유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작자는 자신의 감정을 적실하게 표현하며 독자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하여 당시 유행하던 가사를 삽입하였을 것이다.

『윤시조기록』에는 가사의 직접적인 영향이 확인될 뿐만 아니라, 대구적 표현과 2음보의 중첩이 빈번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문장에서 율격이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작품의 서두를 다시 살펴본다.

4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 『만언사』, 33a면.

45) 15b~17a면.

46) 김현식, 「<옥설화담>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욕구와 반응」,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225~226면.

47) 권순희, 「<옥설화담>의 소통 양상과 통속성」, 『어문연구』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09~112면.

- ㉠ 텃지가 상합흔 후 균음양이 시분흐니  
 텃은 아버지시고 지논 어머니시니  
 텃지롤 안 연후의 부모롤 알고  
 음양을 안 연후의 부부롤 분변흐니
- ㉡ 기둥의 오류이 근원이니 오류의 둥흐른 두 가지다  
 여츠고로  
 인성이 둥흐고 아신이 귀흐도다  
 아신을 어디셔 밧즈와논고?
- ㉢ 부혜생아흐시며 모혜국어아흐시니  
 무아혹아흐시며 당아육아흐시며  
 고아복아흐스 출입복아흐니  
 육보지덕인되 호턴망극이  
 맞즈와견마는<sup>48)</sup>

인용문은 작품의 서두를 4음보로 재배열한 것이다. 먼저 ㉠에서는 “텃지가 상합흔 후 / 균음양이 시분흐니”와 같이 대우를 이루는 구절이 나타난다. ㉡의 “기둥의 오류이 근원이니”와 “오류의 둥흐른 두 가지다”의 경우처럼 6·4조 등으로 동일한 자수(字數)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에서처럼 『시경』을 인용함으로써 동일한 자수를 반복하는 경우도 있다. “부혜생아흐시며~호턴망극이”은 『시경』 『소아(小雅)』 <육아(蓼莪)> 편을 인용한 것으로 조사를 제외하면 4·4조가 반복되므로 운율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문체적 특성은 한글 제문이나 유서(遺書)에서도 간취되는데, 이들 장르와 가사의 친연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들목조씨 집안에서 전승되던 자료 가운데 가사가 발견되지는 않았으나 『윤시즈기록』의 문체를 통하여 윤씨 부인이 가사의 적극적인 향유층이었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

가사는 산문에 비하여 감정을 드러내기예 유리한 장르로 여겨진다. 18세기 양반 여성인 전의이씨(全義李氏, 1723~1748)는 남편이 단명하자 한글 제문과 <절명사>를 창작하였다. 제문은 장르의 관습적 규범을 충실히 따르는 데 반하여 가사는 작자의 내면세계에 집중하였다.<sup>49)</sup> 그보다 후대의

48) 1a면.

여성인 남원윤씨(南原尹氏, 1768~1801)는 유사한 상황에 처하자 한글 유서와 <명도자탄사>를 남겼다. 이때에도 유서보다는 가사에서 심경의 토로가 보다 강조되어 있다.<sup>50)</sup> 이와 같은 장르적 특성으로 인하여 윤씨 부인은 감정을 구체적으로 드러내는 과정에서 가사적 표현을 사용하게 되었을 것이다.

#### 4. 글쓰기를 통한 자기탐색

조선시대 양반 여성은 대체로 삼종지도의 담론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구성하였고, 그 윤리를 어떻게 수행하는가에 따라 자신의 생애를 규정하고 평가하였다.<sup>51)</sup> 이 점에서 윤씨 부인도 예외는 아니다. 그녀는 자신이 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나 남편을 우러러 보고 아들을 의지한다면 삼종지도를 거의 지킬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고 말한다. 이처럼 『윤시조기록』에 나타나는 자기정체성은 당대의 여성적 정체성과 유사하다.

그러나 남편이 세상을 떠났으므로 윤씨 부인은 삼종지도를 더 이상 지킬 수 없었다. 그녀는 거듭된 불행이 자신의 죄악에서 기인한다고 여기고 지독한 죄의식을 표출한다. 자신이 부모의 은혜를 갚지 못하였으니 효자의 죄인이며, 시부모에게 효도하지 못하였으니 진씨부(陳氏婦)의 죄인이고, 남편을 부드럽게 받들지 못하였으니 부도(婦道)에 죄를 지은 데다 입공(立功)하거나 사절(死節)하지 못하였으니 열녀에게 죄를 지었다는 것이다.<sup>52)</sup> 이러한 죄의식은 풍양조씨의 『조기록』에서도 나타난다. 박혜숙은 『조기록』에 나타난 작자의 정체성을 검토하면서 그녀가 철저한 유교적 여성윤리에 입각하여 자기정체성을 구성하였기 때문에 주변의 불행에서 깊은 죄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분석하였다.<sup>53)</sup>

49) 나정순, 『전의 이씨 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 한국고전여성문학회, 2000, 175~176면.

50) 길진숙, 『<명도자탄사>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술회』, 『한국말글학』18, 한국말글학회, 2001, 49면.

51) 박혜숙, 앞의 논문, 266면.

52) 12b~13a면.

53) 위의 논문, 250~251면.

이처럼 삼종지도를 체화하고 있었던 조선후기 양반 여성에게 남편의 죽음이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사건이었다. 여성들은 남편을 따라서 죽을 것인지 아니면 살아남을 것인지 선택해야 하였다. 조씨 부인과 윤씨 부인은 남편을 따르는 것이 마땅하다고 간주하였다. 조씨 부인은 남편이 위독해지자 그가 유명을 달리할 경우를 대비하여 작은 칼을 챙겼으며,<sup>54)</sup> 윤씨 부인은 남편이 세상을 떠나자 열흘 동안 먹지도 않고 자지도 않으며 죽음을 기다렸다.<sup>55)</sup>

그런데 두 사람은 결국 삶을 선택하였다. 물론 당대에도 남편이 죽었을 때 자결하는 것이 지나치다는 주장이 있었다. 시부모를 봉양하고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이다.<sup>56)</sup> 그러나 시부모와 자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결을 선택하는 여성이 있었다는 점에서 어느 쪽도 쉬운 선택은 아니었을 것이다. 조씨 부인은 부친의 간곡한 설득으로 마음을 바꾸었으나<sup>57)</sup> 윤씨 부인은 친부모를 일찍 여의었으며 양부모마저 멀리 있었다. 그리하여 그녀는 자신의 존재를 스스로 해명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윤시조기록』에는 ‘아내’로서의 나보다 ‘딸’로서의 나가 우선시되고 있다. 윤씨 부인은 혼인을 통하여 새로운 가족이 생겼음에도 친부모의 부채에 끊임없이 괴로워한다. 또한 자신이 죽음을 택한다면 친부모의 혈육이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물론 그녀는 시부모와 양부모에게 불효를 끼치지 않고 어린 아들이 지통을 느끼지 않게 하기 위하여 죽지 않겠다고 결심하였다. 그러나 부모의 유체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장 먼저 언급하였다.<sup>58)</sup> 조선후기에 이르러 열(烈)이 효(孝)보다 선행하는 것으로 간주되었는데,<sup>59)</sup> 이는 남편을 따라서 자결한 여성의 유서에서도 확인된다. 윤씨 부인은 유서의 작자와 마찬가지로 삼종지도를 체화하였으나 열보다는 효를 우선시한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54)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조기록』, 62b~63a면.

55) 14a면.

56) 박경, 「〈조기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 역사』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238~241면.

57) 박경, 앞의 논문, 245~250면.

58) 20b면.

59)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512면.

그렇다면 그녀가 이 글을 쓴 이유는 무엇일까? 선행연구에서는 자기서사가 자기탐색, 자기표현, 자기현시, 자기합리화, 자기치유, 자기해명 등의 동기와 관련된다고 보았다.<sup>60)</sup> 윤씨 부인은 서술동기를 필사기에서 직접 밝히고 있다. 그녀는 필사기①에서 평생의 고난으로 인하여 가슴속에서 한 뭉치 철피가 된 울분과 한탄이 결코 풀리지 않는다고 말하며, 이와 같은 고통을 털어놓을 곳이 없는데 자손에게 투생의 이유를 알려주기 위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고 밝힌다.<sup>61)</sup> 또한 필사기②에서 삼일동안 제대로 잠들지 못하여 온갖 생각이 떠올랐기 때문에 글을 쓰게 되었다고 말한다.<sup>62)</sup> 즉, 이 글에는 자기치유와 자기해명의 동기가 일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작품은 다른 여성의 자기서사와 비교했을 때 감정의 절제보다는 분출이 주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무엇보다 저술시기와 관련되어 있다. 작자는 남편이 죽은 지 두 달이 지나서 본문을 작성하였으며 아홉 달이 지나서 후기를 작성하였다. 따라서 인생을 차분히 돌아볼 심적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sup>63)</sup> 이로 인해 작품 내에서 감정이 비교적 격렬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렇다면 작자가 상중에 글을 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이였을까? 윤씨 부인이 직접 밝히지는 않았으나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는 절박함으로 인해 글을 쓰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그녀는 글쓰기를 통하여 삶의 방향을 찾고자 하였던 것이다.<sup>64)</sup>

## 5. 결론

지금까지 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윤시조기록』을 살펴보았다. 이 작품

60) 박혜숙·최경희·박희병, 앞의 논문, 343면.

61) 18a면.

62) 22b면.

63) 풍양조씨는 남편이 죽은 지 1년이 지나서, 한산이씨는 젊은 시절 남편을 잃고 자신의 환갑을 기념하여 글을 썼다.

64) 유호식은 서양의 자서전을 검토하면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글쓰기를 통해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지적하였다(유호식, 『자서전, 믿음사, 2015, 103면).

은 19세기 양반 여성인 해평윤씨 부인이 자신의 반생에 대하여 서술한 자기서사이다. 작자는 유아기에 부모를 여의었으며 20대에 청상이 되는 등 평탄한 인생을 살지 못하였다.

『윤시즈기록』은 자신의 생애를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있되 행복한 사건과 불행한 사건을 대비적으로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하여 작자의 박명한 생애가 효과적으로 전달된다. 윤씨 부인은 일생 동안 느꼈던 감정을 상황의 묘사와 독백의 직접 인용을 통하여 톰진하게 묘사하고 있다. 또한 이 작품에는 가사의 창작 방법을 사용하거나 가사를 직접 인용하는 등 가사의 영향이 많이 나타난다.

이 작품에서 나타나는 자기 정체성은 삼중지도를 체화하고 있는 당대 여성의 집단적 정체성과 유사하지만, 남편에 대한 열보다는 부친에 대한 효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다. 윤씨 부인은 남편을 잃은 위기 상황에서 스스로 자신의 가치를 해명하고 자손에게 투생의 이유를 밝히기 위하여 자기서사를 기록하였으리라 짐작된다.

앞으로 다양한 자료의 수집을 통하여 『윤시즈기록』의 작자와 그 일가에 대한 상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의 자기서사, 유서(遺書), 제문 등과의 비교를 통하여 『윤시즈기록』의 위상을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1. 자료

『윤시즈기록』(화성시 향토박물관 소장)

『즈기록』(국립중앙도서관 소장)

『만언사』(국립중앙도서관 소장)

권영철 편저, 『규방가사』 I,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79.

김영배 편저, 『한산 이씨 고행록의 어문학적 연구』, 태학사, 1999.

김일근, 『인목대비 숭회문의 소개와 몇 가지 문제』, 『국어국문학』23, 국어국문학회, 1961.

성백효 역주, 『동몽선습·격몽요결』, 전통문화연구회, 1992.

성백효 역주, 『시경집전』, 전통문화연구회, 1993.

성백효 역주, 『추구·계몽편』, 전통문화연구회, 1992.

전주이씨덕천군파총회 편, 『전주이씨덕천군파보』, 전주이씨덕천군파총회, 2003.

풍양조씨세보소 편, 『풍양조씨세보』, 풍양조씨대중회, 2006.

해평윤씨대동보 간행위원회 편, 『해평윤씨대동보』, 해평윤씨대동보간행위원회, 2005.

### 2. 단행본

강명관, 『열녀의 탄생』, 돌베개, 2009.

유호식, 『자서전』, 민음사, 2015.

정병설, 『<완월회맹연> 연구』, 태학사, 1998.

화성시 편, 『들목조씨 기증 고문서』, 화성시, 2006.

### 3. 논문

권순희, 『<옥설화담>의 소통 양상과 통속성』, 『어문연구』37(2), 한국어문교육연구회, 2009, 107~123면.

길진숙, 『<명도자탄사>의 내면의식과 자탄적 숭회』, 『한국말글학』18, 한국말글학회, 2001, 43~69면.

김경미, 『<자기록>의 저자 ‘풍양 조씨’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8,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4, 121~144면.

김정경, 『<규한록>의 구조적 특성과 여성 서술자의 기능 고찰』, 『한국고전연구』12, 한국고전연구학회, 2005, 101~131면.

- 김현식, 『<옥설화담>의 변이양상과 수용자의 욕구와 반응』, 『한국시가연구』35, 한국시가학회, 2013, 221~248면.
- 나정순, 『전의 이씨 제문과 <절명사>의 상관성 고찰』,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1,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0, 153~181면.
- 박 경, 『<즈기록>을 통해 본 조선 후기 열부관과 여성의 대응』, 『여성과학사』19, 한국여성사학회, 2013, 229~261면.
- 박옥주, 『풍양조씨부인의 <즈기록> 연구』,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3,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01, 165~188면.
- 박요순, 『신발견 '규한록' 연구』, 『국어국문학』49·50, 국어국문학회, 1970, 149~169면.
- 박혜숙, 『여성적 정체성과 자기서사-<즈기록>과 <규한록>의 경우-』, 『고전문학연구』20, 한국고전문학학회, 2001, 239~271면.
- 박혜숙·최경희·박희병, 『한국여성의 자기서사(1)』, 『여성문학연구』7, 한국여성문학학회, 2002, 323~349면.
- 백순철, 『규방가사의 작품세계와 사회적 성격』,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1, 1~155면.
- 심경호, 『낙선재본 소설의 선행본에 관한 일고찰-온양정씨 필사본 <옥원재합기연>과 낙선재본 <옥원중회연>의 관계를 중심으로-』, 『정신문화연구』13(1), 한국학중앙연구원, 1990, 169~188면.
- 이우경, 『규한록의 수필적 성격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1~147면.
- 이정옥, 『여성의 자기 서사와 유교 규범-경주지역 내방가사를 중심으로-』, 『신라학연구』6, 위덕대학교 부설 신라학연구소, 2002, 127~156면.
- 조혜란, 『고전 여성 산문의 서술방식』, 『이화어문논집』17, 이화어문학회, 1999, 295~311면.
- 한길연, 『대하소설의 의식성향과 향유층위에 관한 연구-<창랑호연록>·<옥원재합기연>·<완월회맹연>을 중심으로-』, 서울대 박사논문, 2005, 1~276면.
- 홍인숙, 『<자기록>에 나타난 일상적 생애 서술의 특징과 효과』, 『한국고전여성문학연구』25, 한국고전여성문학학회, 2012, 241~272면.

A study of *Yun-si-jagirok*(윤시즈기록) by Haepyeong-Yun-ssi(해평윤씨)

Cho, Hae-jin

This paper is the first study about *Yun-si-jagirok*(윤시즈기록) written by Haepyeong-Yun-ssi(해평윤씨) that is transcribed in Hangul and possessed in the Hwaseong Municipal Folk Museum. *Yun-si-jagirok* is a self-narrative written by a Yangban woman in the nineteenth century which is handed down in Pungyang(豊壤) Jo(趙) family having lived in Hwaseong for generations.

While the author of *Yun-si-jagirok* describes her life in chronological sequence, the narrative structures of it include 'comparison of her fortunate and unfortunate events.' The writing expresses her sadness and loneliness by describing a daily life of her own family and quoting her monologues directly. Moreover, the writer accepts some writing styles of Gasa and quotes some lines of it.

Although Haepyeong-Yun-ssi's self identity was very similar to that of women of her time regulated by Sam-jong-ji-do(三從之道), it is distinctive that she puts her filial duty before her wifely duty in the writing. The writer wrote *Yun-si-jagirok* to provide the meaning of her own life and to identify several reasons why she did not kill herself even after her husband's death to her descendants.

keywords: *Yun-si-jagirok*, Haepyeong-Yun-ssi, self-narrative, PungYang Jo family, nineteenth century

접수일자: 2015. 9. 30.  
심사기간: 2015. 10. 1. ~ 2015. 11. 10.  
게재결정: 2015. 11. 10.

